순천시 '우주 워크숍'…우주산업 기반 구축 박차

순천대 함께 발전방향 등 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업무협약 연내 발사체 단 조립장 설계 착수

오는 2025년 우주 발사체 단 조립장이 들어서는 순천시가 순천대학교와 함께 '우주 워크숍'을 열 고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순천대와 공동 주관해 '1회 우주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열었다.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투자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단 조립장 인허가를 신청하고 부지 계약을 맺은 뒤 올 해 안에 발사체 단 조립장 설계에 착수한다.

단 조립장은 오는 2025년 초 준공돼 한국형 발 사체 누리호 제작에 쓰인다.

순천시는 글로컬대학 30에 예비 지정된 순천대 와 함께 우주 워크숍을 열어 우주 경제시대 지·산· 학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장

'연향들 일원'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친환경적 시설 구축"

행사 주제는 '순천시 우주산업 추진전략 및 발 전방향 모색'으로, 순천형 우주산업 생태 확장 방 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순천대 기계우주항공공 학부와 우주 항공분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황학종 순천시 신성장산업과장이 '순천시 우주산 업 추진계획'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오승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팀장의 주제발표 '민간 발사체 사 업 추진 방향'이 이어졌다. 이후 이기만 순천대 기 계우주항공공학부 교수의 주재로, '전남 발사체 클 러스터 순천시 역할' 주제를 두고 7명이 토론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차세대 전남 우주 발사체 클러 스터에서 순천시의 역할과 우주 산업 혁명 확대 방 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에 힘입어 우주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번 '우주 워크숍' 개최하게 됐다"며 "우주 경제에 대한 비전 제시와 우주 산업 혁신과 도전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황학종 순천시 신성장산업과장이 지난 22일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동 주관한 '1회 우주 전문가 초빙 워크숍'에서 순천시 우주산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모든 섬이 박람회장…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밑그림 확정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자원순환시 설)의 최적 후보지로 '연향들(하단부) 일원'을 선

정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 문 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와 현장실사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 년부터 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순천시는 12월 말까지 입지를 결정·고시해야 2029년까지 완공이 가능

자원회수시설은 세계적으로 탄소저감,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도심 인근에 설립하는 추세다.

국내에는 하남시, 평택시가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심과

가까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는 벤치마킹 다녀온 하남의 유니온파크 보다 더욱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

의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상부는 체육시설, 공원 및 문화시설 등의 융· 복합 시설을 설치해 순천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직매립 금 지에 대한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절실함 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이후 행정절

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종합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주행사장 진모지구·부행사장 개도 조직위·지원단 내년 1월 출범

여수시가 오는 2026년 여는 여수세계섬박람회 밑그림을 확정했다.

시는 최근 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 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종합기본계획을 확정 했다.

종합기본계획에는 '섬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큰 주제 아래 추진 전략을 담았다.

섬박람회가 열리는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와 부행사장인 개도·금오도 등에 대한 공간 개념도 제시했다.

여수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섬이 박람회장이 될 수 있도록 꾸밀 방침이다.

주제관은 '바다의 무한한 가치'와 '바다와 인류를 잇는 섬', '섬이 꿈꾸는 미래' 등 이야기가 골자를 이루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하는 '미디 어 터널' 작품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온몸으로 느끼고 참 여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기술(IT)이 적용된다.

행사장 안에는 도심항공교통(UAM) 탑승장소 가 마련돼 관람객이 탑승과 드론 물품 배송을 체험 할 수 있다.

여수시는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사업을 발 빠르 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전남도와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 기구를 설립하고 별도 정원에 대한 협의를 거쳐 1



정기명 여수시장이 최근 열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최종 보고회에서 박람회 기본계획을 확인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국 2과 체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재단법인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섬박람회지원 단은 내년 1월 출범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섬박람회 종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그동안 주민 설명회, 중간 보고회 등을 열며 시 민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다져왔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17일부터 31일간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인근 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여수시와 전남도가 함께 치르는 행사로, 30여

개국의 해외 참가국과 200만명 이상 관람객, 6000명 이상 고용창출, 4000억 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과 예상되는 비공인 국제행사다.

총사업비 212억원이 투입되며, 시는 연계 사업을 통해 100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섬 박람회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소외된 섬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이충무공 친필첩' 명칭 변경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으로



명칭이 변경된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

고흥군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로 지정된 '고흥 이충무공 친필첩자'의 명칭이 33년만에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으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가 이번 명칭 변경 고시한 유형문화재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은 1973년 노산 이은 상 선생이 고흥 고령신씨 문중을 방문해 충무공 이 순신의 친필 고문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알려지 게 됐다. 이 임명첩은 1990년 12월 5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로 지정되면서 발급자인 이 충무공 중심으로 명칭이 붙여졌다.

의병장 신군안(申君安, 1544~미상)은 본관이고 령(高麗)으로 고흥군 두원면 대전리 출신으로 1573년 무과에 급제해 첨정호군 등을 역임했으며, 정유재란(1597)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킨 뒤 흥 양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던 중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에 의해 의병장 임명첩을 받았다.

임명첩에 의하면, 1597년 9월 명량해전 후 흥양 출신 신군안은 흥양 뿐 아니라 전라도 연해안 7개 고을 출신 의병들과 지역 수호와 방위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또 흥양지역에 많은 왜군이 침입했으나, 신군안 의병장을 중심으로 규합된 병력으로 여러 차례 의 병전을 치러 승전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리 지역 출신 의병장의 임명첩(장)이 국립진주박물관에 기탁 보관되어 있다"면서 "올바른 명칭 변경으로 소중한 문화유 산이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주민에 감자 300상자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는 지난 21일 지역에서 생산된 감자 300상자(6000kg)를 댐 주변 주민들에게 전했다. 감자는 댐 주변 주민 300여세대와 K-워터 깔끔이청소사업단 참여 경로당 200곳에 전달됐다.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와 사단법인 지역사랑복 지협의회는 이날 주암댐 생활도우미사업 대상자 를 찾아 감자와 밑반찬 도시락을 나눠줬다.

김창준 주암댐지사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댐 주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